

불교미술 새로운 가능성 여는 '붓다 웃다'

붓다아트페스티벌2014...3월 6~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 2회 붓다아트페스티벌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실험하는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이 2회를 맞았다.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로 2회를 맞은 BAF2014는 '붓다, 웃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중들을 찾아간다. 한층 강화된 본 전시와 더불어 불교문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만화)하다'전, 20만원전을 기획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꾀했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불교미술을 어렵게만 느끼던 이들이 일반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편하고 즐겁게 불교미술을 관람하길 바란다. 불교문화초대기획전은 불교미술 장르 개척 및 콘텐츠화를 통한 대중화를, 20만원전은 불교미술의 가격적

'만화전' 불교미술 장르 개척 '20만원전'으로 불교미술 대중화 수익금 일부는 기부 나눔 동참

인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본 전시는 불교회화에서부터 조각, 공예, 현대불교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및 갤러리들이 참가한다. 특히 부산의 나무갤러리, 해동불교미술원, 황규철 작가, 예상희 작가, 서철교 작가, 이정숙 작가는 1회에 이어 2회 역시 참가해 BAF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불교문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만화)하다'는 함축적이면서도 딱딱한 불교의 교리와 사

상을 간결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그림으로 보여준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참여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만화 작품을 통해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 불교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현대적인 포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여기에 포토존, 사인회 등도 마련돼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만화전의 초대 작가로는 △영풍발랄한 캐릭터 어라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지산 스님 △간결한 그림과 문구로 깨달음을 주는 배중훈 작가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경수 작가 △명상들을 새롭게 전달하는 용정은 작가 △경북콘텐츠허브원과 함께 '제비원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인기 작가 주호민이 참여한다.

두 번째 기획전은 '새 봄의 선물, Art Donation Project-20만원전'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중 20만 원대의 작품, 후 그 이하 가격대의 작품만을 전시 및 판매한다. 적절한 가격대의 작품 판매를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예술을 통한 기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기획의 취지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가격이 중저가이고 작품성 있는 소품을 선별했다. 불화와 만다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출품되며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해설사를 초대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수익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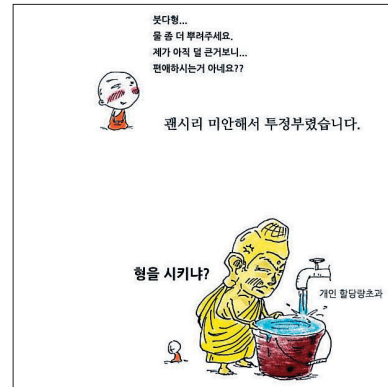
임상진의 '佛 Mixed Media'



임수진의 '만다라-연'



서철교의 '지연관음'



지산 스님의 어라 캐릭터

일부를 기부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만원전을 통해 불교계에서도 선물이거나 상품으로 불교미술작품을 주고받는 풍조를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붓다아트페스티벌과 함께 조계종

이 주최하는 '2014 불교박람회'는 3월 6일 ~ 3월 9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며 불교문화의 전통과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2231-20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미술 대중화 선언

김영수 BAF2014기획위원장



2회를 맞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두 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 전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획위원장 김영수 작가(사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20개 부스에서 올해 40개 부스로 2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교 전반적으로 미술축제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섹션은 만화전이라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불교미술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에 이번 만화전을 기획했습니다."

불교미술은 그동안 미술 시장 보다는 불사를 통해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붓다아트페제는 지난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작가와 대중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불교미술이라 하면 사찰 법당에 있는 불화나 불상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붓다아트페스티벌은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외연 확대에 나서고자 한다. "불교박람회와 별도로 독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에도 우리 불교미술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찰나 속에 흐르는 삼천년의 혼

국립공주박물관 2014년 특별전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경주 부여 익산의 불교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정성호)은 2014년도 겨울 특별전으로 '찰나 속에 흐르는 삼천년의 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3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사진과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7인의 작품,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보인다. 또한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백제 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공주박물관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9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도시 전체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세계기록유산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시대 왕실과 유

경주 부여 익산 등 불교 문화재 사진작가 7인의 작품에 담아

교사상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종묘부터 안동·하회마을까지 각각의 문화유산은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서는 故김대벽, 김광선, 백종하, 서현강, 안장현, 전성영, 한석홍 등 문화재 전문 작가들의 사진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



서현강 작가의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장, 석굴암, 정림사지 유적 등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문화유산과의 만남 속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며, 아울러 찰나 속에 멈춘 채 삼천년을 흘러온 우리 조상들의 혼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041)850-6364

정혜숙 기자

20년 불화 수행 '공(空)과 허(虛)'로 표현

한민정 작가 불화 초대전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어느 작은 사찰에서 보게 되었던 불화가 제 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시는 그간 20년 동안의 작업 결과물입니다. 뜯어보면, 이는 단순히 반복의 작업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듬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뒤엉킨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민정의 '공 과 허' 불화초대전이 2월 12일~18일 인사동 이형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석가후불도, 어람관음도, 정병 II 등 28점의 불화를 전시한다.

'석가후불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여의를 지닌 문수보살과 가섭존자 그리고 우측에는 연꽃을 지닌 보현보살과 아난존자가 묘사되어 있다. 토황으로

밀칠을 한 후 가사에는 주조색이 되는 주색을 광물성 합성안료인 진사를 사용해 표현했다. '어람관음도'는 33관음 중 하나로 나찰, 동쪽, 아귀의 해를 제거해 주는 관음으로 물고기가 가득한 어람을 들고 있는

2월 12일~18일

인사동 이형아트센터

보살도다. 바탕색을 토황으로 밀칠하고 분채로 채색하였는데 회화적인 묘사를 가미해 연잎과 꽃잎 줄기의 묘사로 붉은 색의 선을 굵고 색의 농도를 달리하며 입체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지난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에 만족해 버리는 안일함이 스스로를 퇴화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참회로 '공(空)과 허(虛)'를 주제로 삼았다고 전한



한민정의 '어람관음도'

다. "이 작품의 전시회가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박했던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작품에 매진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불화 작업을 전시로 회향하고 이제는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또 새로운 작품으로 대중들과 늘 호흡하는 작가가 되고자 합니다" (02)736-4806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 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쓰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나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나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나에 따라서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수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수,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일체 중지를 통달한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였다.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글썽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 죽 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 장' 판매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도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종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도 남서